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서울시·서울신보와
소상공인 위해 맞손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장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을 잡았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희망재단)은 이를 위해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이미지)하고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및 종합컨설팅 등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게 된다. 또 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게 전담마케터' 지원사업을 위한 마케터 및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전문교육은 '희망재단'이 전담한다.

희망재단의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 대해서 보증재단은 종합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서울 소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희망재단은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2월에 설립된 순수 민간 공익 재단법인이다.

/김승호 기자 bada@

4조 건기식시장 잡아라… 제약社 진출 러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론칭·제품라인 강화 등
제약사 건기식 영토확장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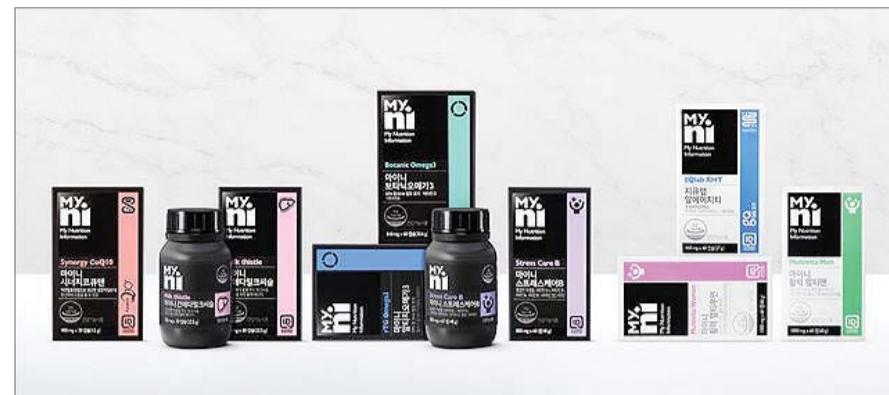
신사업으로 R&D 자본 마련해
신약개발 탄력 등 선순환 기대

국내 제약사들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으로 영토확장에 나서고 있다. 유한양행, 일동제약 등 주요 제약사들이 자체 건기식 브랜드 개발하고 컨셉스토어를 론칭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선보여 건기식 시장에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기식의 시장규모는 2012년 1조7039억 원에서 지난해 3조8155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가 넘게 커졌다. 또 전년(2016년) 대비 17.2%나 성장했다. 이같은 성장률은 세계 시장 성장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도 건기식 시장 성장성에 주목해 건기식 브랜드 론칭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 1위 제약사인 유한양행도 건기식 사업 진출에 신호탄을 쐈다. 유한양행은 건기식 브랜드 '뉴오리진'을 통해 기존 제약업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일동제약이 내놓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마이니'가 성인 남녀, 어린이, 임산부 등 성별이나 연령층에 맞게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출시했다.

/일동제약

'뉴오리진'은 지난 신제품으로 최근 '뉴오리진 비타민C', '뉴오리진 밀크씨슬', '뉴오리진 스톤허니 머스코바디 케인 슈가' 등 3종을 잇달아 출시했다.

지난달 브랜드 론칭과 함께 홍삼·녹용·루테인·프로바이오틱스·소금 등을 선보인 데 이어 제품군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루테인,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올해 안에 10여종의 건기식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며 미래 유한양행의 먹거리로 찾는다는 각오로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한양행은 서울 여의도 IFC몰에 건강기능식 판매 코너와 레스토랑 코너로 구성된 컨셉스토어를 선보였다. 제품 판매 코너에서는 뉴오리진이 직접 개발한 원료로 만든 홍삼·녹용·루테인·프로바

이오틱스·비정제소금 등을 구입할 수 있고, 레스토랑 코너에서는 뉴오리진 제품을 주재료로 한 샐러드·샌드위치·스프·차·무알콜 티 카테일 등을 판매한다.

일동제약도 지난해 6월 론칭한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마이니'를 통해 현재 까지 간·장·눈 건강 등 테마를 갖춘 30여종의 제품을 출시했다. '마이니'(MyNi)라는 이름은 '내 몸을 위한 맞춤 영양정보'(My Nutrition Information)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마이니(MyNi) 메모리 지피에스'를 출시해 건기식 제품라인을 한층 강화했다.

동국제약은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적극 활용해 건기식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동국제약의 프리미엄 토탈헬스케어 전문점 '네이처스비타민샵'은 전국

주요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다. 올해 1월에는 현대백화점 카페스점 매장을 리뉴얼하기도 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브랜드 '장대원'을 론칭하고 건기식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대원제약은 지난해 12월 글로벌 유통업체와 손잡고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대원제약은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초도물량으로 약 10만불 가량의 프로바이오틱스 완제품을 생산해 선적을 완료했다.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도 최근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중국에서 개최한 '건강영양박람회'에서 단독 부스를 내는 등 건기식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의 잇따른 건기식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보다 훨씬 진입장벽이 낮은 건기식 시장에 진출해 정작 본업인 의약품 연구개발(R&D)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제약산업 특수성을 고려할 때 건기식 및 식품, 화장품에 골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투자전문가는 "건기식 분야에 서 선전 등 제약사가 사업 다각화를 통해 마련한 자본이 신약 개발에 탄력을 줄 수 있어 오히려 선순환에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가볍고 시공 편리한 '準불연 석고보드'

KCC '라이트원' 중량 10% 감소

KCC는 기존 석고보드보다 가볍고 시공이 편리한 석고보드 '라이트원(Lightwin)'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출시한 라이트원(Lightwin)은 기존 석고보드 대비 무게가 10% 줄어 운반이나 취급 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석고보드를 한번에 운송할 수 있어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제품은 또 '처짐 방지 성능'을 갖추고, 중량 대비 강도도 향상돼 일반 석고보드보다 천장 시공에 최적화돼 있다. 특히 라이트원을 천장에 사용할 때 경량철골 천장틀인 M-바 사이의 간격을 300mm에서 450mm로 넓히더라도 처짐 정도가 덜해 효과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라이트원은 대표적인 준불연 건축 마감재다. 최근 들어 국내의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델이 KCC의 경량 석고보드 '라이트원(Lightwin)'을 선보이고 있다.

가운데 예기치 않은 화재 발생에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화재 안전성까지 확보하고 있다.

KCC는 고급형 천장재인 마이톤, 마이텍스와 석고텍스, 석고보드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불연 천장재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연구 개발을 이어나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연 관련 기

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석고보드 시장을 선도 할 라이트원 석고보드는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시공에 필요한 시간은 단축해 더욱 효율적이고 완벽한 벽체와 천장 시공을 가능하게 한다"며 "KCC의 우수한 경량화 기술을 적용한 라이트원을 통해 국내 건축자재 시장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문화공유 '외국인 근로자 문화 한마당' 개최
외국인근로자, 중소기업 관계자 등 1200여명을 초청해 '2018 외국인근로자 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각 국의 문화를 공유해 서로 간 소통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선 동티모르, 몽골,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1개 국가의 주한대사와 영사들도 참여해 자국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다.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들과 중기중앙회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동아오츠카 장미축제서 '오로나민C' 증정

'오로나민C 생기올릴레이 캠페인'

동아오츠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에서 열린 '2018 서울 장미축제'에서 '오로나민C 생기올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전했다.

'오로나민C 생기올릴레이 캠페인'은 전국민 생기전달 릴레이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다양한 상황에 놓인 소비자들에게 비타민 C 충전으로 건강과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서울장미축제'는 5.15km 장미터널과 수립대 장미정원, 중화체육공원 일대에서 열린 지역축제로 약 190만명이 다녀가는 5월 대표 행사다.

오로나민C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 단위 등의 다양한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대



지난 18일 동아오츠카가 '오로나민C 생기올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형 콘테이너 부스를 설치하고 오로나민C를 증정하고 있다. 송대호 동아오츠카 오로나민C 담당자는 "오로나민C만의 생기와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민웅 기자 parkiu7854@

'한국의 매운맛' 중국서도 통했다

aT,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고추장·떡볶이 등 매운 식품 소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2018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Sial China·시알 차이나)에 참가해 현장 계약이 이뤄졌고 다수의 품목이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18일까지 열린 이번 박람회에

는 고추장, 떡볶이소스 등 매운맛 식품을 중심으로 88개 기업이 한국관으로 참여했다.

이곳에서 유자차로 100만 달러의 계약이 성사됐고 녹차스프레드, 쌀강정 등의 10개 품목은 시알 이노베이션(Sial Innovation)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관에서는 매운맛 제품들과 함께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영유아식품, 맛벌이 가정을 위한 간편식과 건강식품



국제 식품박람회 한국관

/연합뉴스
등 중국 시장의 트렌드에 맞춘 제품을 다수 선보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